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9. 6 ~ 2020. 9. 19 제232호



▲ 이집트 베두인족 아이들. 제공: WMM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광야의 언덕을 한 숲에 달려오는 아이들. 까무잡잡한 구릿빛 피부에 긴 옷을 입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집트의 베두인족이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아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 것일까? 광야에 집을 짓고 사는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이들을 기쁘게 할 선물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 선물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이런 예상치 못한 기쁨의 선물을 우린 이미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찾지 않고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광야의 폭양과 같은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내셨다.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광야에서 소망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한 마리 양 같은 우리를 발견하시고는 달려와와와 락 끌어안으신다.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던, 광야의 타들 어갈 듯한 해와 밤의 맹렬한

추위를 홀로 견디던 인생이 참 주인을 만난 날.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됐다. 뜻밖에 찾아오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베드로전서 1:8) [GPNEWS]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어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北, 경제 상황 타개 위해 해킹 급증... 美, 몰수 소송 제기

북 해킹 수준,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미 법무부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을 몰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한의 사이버 절도 행위에 세계의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몰수 소송 대상 계좌들은 총 280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2건의 해킹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지난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 5000만 달러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해커들은 작년 7월 익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3에서 미화 27만 3000달러 상당의 11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이어

작년 9월에는 미국 기반의 가상화폐 거래소 10과 협력 기업들의 자금이 있는 거래소 11에서 약 24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다.

이 두 건의 탈취 사건에 연루된 총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을 국제 금융 감시망을 회피하며 다양한 수법으로 세탁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금융 범죄 활동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이는 것인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더 교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가상화폐 등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북한의 행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수준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자국 경제가 어렵다고 불법 해킹과 같은 범죄행위로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이처럼 공공연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다. 이것이 공산주의다. 더욱이 주체사상으로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있는 북한 지도 체제가 변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어떤 협력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16)

Made in GOD,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져 건져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져주었으니 이제부터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죄 사함에만 온통 관심을 갖지만,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무엇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전에 내게 익숙한, 죄 짓고

화내고 시기하고 실패하는 자아인식에서 벗어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가슴 안에 있는 진정한 실재(實在),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의 원형(原形, 본래의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디자인하고 품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너의 원래 원형은 이런 거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실 꿈을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원형

은 어떤 것일까요? 그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미술 작품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누구 작품인지 결론이 나면 이야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으셨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하나님



일러스트-김경선

의 작품'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신, 환경, 학벌, 외모에 얼마나 매이고, 또 다른 사람을 그 가치로 평가합니까? 더러운 사탄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이 사탄이 혈통, 가문, 성과, 지위, 계층 등으로 우리를 주눅 들게 하거나 헛된 자만심을 갖게 하고, 우리는 어처구니없게 거

기에 속아 살아왔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갓(made in God).”입니다. 지금 가진 조건, 문제, 상황, 부족함이 여전한 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말은 바로 이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이태원 클럽 이후 등장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GH형' 급속 확산

염안섭 원장, 유튜브 '코로나 대확산의 원인'에서 밝혀



▲ 수동연세병원 염안섭 원장. 출처: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 영상 캡처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GH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중앙병원)이 이 유형의 바이러스는 이태원 게이클럽 이후 발생했으며,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강력한 확산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에이즈 환자 전문치료기관을 운영해 온 염 원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서 "GH형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 5월 이태원 게이클럽의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 등장했으며 이는 초기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는 S형,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러스는 V형이고, GH형은 다른 바이러스보다 확산력이 6배 높은 변종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염 원장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코로나 대확산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최근 한 외국 연구진이 정액 안에 있는 물질을 쥐의 항문에 주입할 실험에서 동성애자들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결과를 코

로나바이러스에 대입할 때, 기존의 S형, V형에 비해 변종인 GH형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이 대폭발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동성애자들 인권에 발목이 잡혀서 역학조사를 잘 하지 못했다. 동선을 공개하면 인권이 침해될까봐 과잉 보호했다."며 "정책과 언론 등에 의해 GH형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게 됐고, 이것이 현재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균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즉,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나타난 코로나 환자와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대상으로한 역학조사가 더 엄밀하게 이뤄졌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사랑제일교회에 번진 바이러스 형태도 GH형 바이러스 이기에, 이태원 게이클럽 이후에 나타나 일명 '게이 바이러스'로 불리는 이 변종 바이러스의 교회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코로나 사태 당시 연락 두절 인원은 수천 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연락 두절에 대해 끝내 역학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연구해온 유일 집단이다. 정부와 협력해서 코로나 문제를 잘 논의해 보자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단 한 번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게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 어떻게 예방할지 자문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교회만큼은 정부와 협력할 생각이 있다. 함께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GH형 바이러스의 시작은 지난 이태원 클럽 사례부터 본격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에서 연락이 두절된 수천 명의 역학조사는 마무리하지 않고 교회만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부당한 예배금지와 벌금 등의 행정 명령, 성도들의 인명부 압수 수색 등 한국사회에 교회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가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한국교회를 혐오 시설, 집단으로 여기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식당 출입구에 '교회 관계자 출입금지'라는 글귀를 써 붙인 업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수많은 교회들은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 같은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 더욱 깊게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 제공> [GPNEWS]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인 차별·억압 가중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각국의 경제 사정이 열악해져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식량지원 등 긴급구호가 제공돼도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거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자

국 내 기독교인을 더욱 거세게 탄압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코로나 최초 발생지 중국은 봉쇄령 기간 중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후 중국 내 온라인 예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공인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안전 제도와 정부 지원이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 알제리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기독교인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현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정부는 물론 가족으로부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코로나 방역 물품은 커녕 식료품 구입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릴리스 인터내셔널이 전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17~8.29)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WHO, 아프리카 대륙에서 '소아마비 공식 퇴치 선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5일 아프리카 대륙을 척수성 소아마비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인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마지막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된 지 4년 만이다. WHO는 성명에서 "정부, 기부자, 일선 보건 직원과 지역사회 등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180만 명 가까운 어린이가 평생을 불구로 만드는 마비 증세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주님, 소말리아의 어린아이들 보살피주심에 감사합니다. 구호품과 의료품이 전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있음을 이들이 보게 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 내년도 예산안 최대 늘려 '나라빛' 증가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늘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 원 이상, 청년 주거·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강화하는 포용예산 등을 올해보다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뉴데일리가 26일 보도했다. 올해만 100조 원 가까운(98.6조) 국가채무가 늘었는데 내년에도 상당 규모의 나라빛 증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빛이 증가해도 생산이 같이 증가한다면 해결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좋아질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예산 증가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주님의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美 캘리포니아 산불 서울면적 6배... 주민 10만 명 대피

미국 캘리포니아주 560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서울 면적(605km²)의 6배에 해당하는 91만 5000에이커(3702km²)의 산림을 태우고 있다고 지난달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소 1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소방관 1만 2000명을 투입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사흘 새 무려 1만 800번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면서 수백 건의 화재를 일으켰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미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엄청난 면적이 불타버린 이 상황 앞에, 주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들과 증인들을 깨워주시고 미국의 교회가 각성되기를 간구드립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9월 7일 ~ 9월 19일

9월 7일 ~ 9월 12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이**)010-3737-3629, **9.7(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9.7-10(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9.8(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9.8-11(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9.9(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9.10(0-24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9.1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9.11(22시)-12(04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5교회 진행중.

9월 14일 ~ 9월 19일 9.14,16-19(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9.14-18(10-22시) ▶전북 완주 / 복음과기도의집(김**)010-4743-9397, 9.14-19(14-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60-3632, 9.15(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9.15,17-19(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9.17(0시)-18(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공동체(정**)010-3697-0641, **9.18(10-12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9.18(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그 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24365 기도방송

기도방송 '다시 기도'가 유튜브 채널 '김용의tv'에서 매주 월, 금요일 밤 10시에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월요일은 각국을 위한 기도, 금요일은 느헤미야52 기도정보로 라이브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기획 | 코로나19의 영향과 의미 (3)

코로나19는 파괴적이었지만 전화위복 될 수 있다

이 기획은 지난 229호, 231호에 게재된 세계기도정보의 저자 제이슨 맨드릭이 코로나19의 영향과 의미를 담은 ‘글로벌 전염, 글로벌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소책자 내용의 세 번째 요약문이다. 영어 원문은 웹사이트(covid-19.operationworld.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코로나 시대 미디어 사역

기술 장비를 갖춘 여러 교회들은 몇 년 전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사역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예배로의 급속한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뿐 아니라, 병상 중에 있는 사람들, 교회와 지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교인들과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는 기존 10% 이내였던 교회 참석률이 코로나 봉쇄 때는 오히려 25%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알파 코스의 온라인 참석자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외딴 시골에서는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역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콩고나 브라질에서는 비록 인터넷 기술은 있지만, 데이터 사용비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먹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스토리텔링이나, 노래나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기독교 라디오와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미디어 사역이 기독교인들을 제자 훈련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전도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뤄지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 이뤄진다. 디지털 자원은 선교 가속화를 위한 훌륭한 도구지만 디지털이 개인 관계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디지털 사역에는 기술의 혜택 뒤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첫째, 현재 공유되고 있는 콘텐츠의 홍수를 관리해야 한다.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때 ‘디지털 자료가 정말 사역에 필요한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디지털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엔터테인먼트의 세상은 훨씬 앞서 있다. 넷플릭스에는 이미 100개가 넘는 쇼가 있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천박한 자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일상이 됐다. 출처: 유나이티드714 홈페이지 캡처

셋째, 디지털 세계는 좋은 자료도 제공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확산시킬 수 있다. 분별력과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스펠전 목사는 “진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돌아서 이미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넷째, 디지털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디지털의 힘의 논리에 지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계의 거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이트와 콘텐츠들은 삭제하거나 강등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복음전파와 전도에 관한 기독교적 내용이나 도덕성,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매우 크다. 중남미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공동체가 매우 끈끈했고 관계 중심적이며 친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때문에 현지의 기독교인들이 현지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인터넷 쇼핑처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세상에서 수동적이고 단절된 참여가 당연시 된다면 세계 선교는 그들이 관심 가질만한 쇼핑리스트에도 해당되지 않아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위기의 때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또한 사실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여인들의 목소리, 빈민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상적인 때다. 그래험 힐(Graham Hill)과 글로벌교회프로젝트(The Global Church Project)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듣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상의 전략

‘기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금 위기의 때는 전 세계 교회가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때다.

‘더 큰 능력은 없다’의 저자인 리처드 할버슨은 “기독교인들에게 중보기도는 보통의 일이다. 어느 곳에서도 중보기도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륙도, 국가도, 단체도, 도시도, 사무실도 필요 없다. 중보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말했다. 스테판 고크로거는 “기도에 관한 한 단 하나의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는 전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기도의 도약을 가져온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온라인 기도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코로나 이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수많은 기도회가 진행돼 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기도회 숫자가 더 증가했다. 유나이티드714(Unite714) 기도운동은 역대 7장 14절 말씀에 근거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시작됐다. 아우크스부르크에 위치한 게베트하우스(기도의집)는 독일 가톨릭 은사 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들의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는 독일권의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 시기에 게베트하우스의 생생한 예배와 기도는 세속적인 독일 사회 뿐 아니라,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도 24시간-7일 운동’도 놀라운 전 세계 기도운동 중 하나다. 기독교인들은 기도 24-7 웹사이트에 기도실을 등록할 수 있고, 기도에 관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올해 3월과 4월에는 기존 1

년 동안 등록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24-7 사이트에 등록했다.

20세기 중국의 선교와 교회 성장 이야기는 놀랍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마카오에 도착한지 약 1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공산당이 장악했다. 중국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혁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선교사들이 필요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1948년,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어떻게 중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전 세계 교회는 중국과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다. 수십 년에 걸친 간절한 중보기도는 이 기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지속됐다. 중국 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지하에 숨어 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다.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가 중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소망의 이유를 가져야 한다

모든 불확실성, 불신, 절망 및 좌절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소망으로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며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구속하시는 사랑이 많은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구속의 목적을 위해 주셨고, 모든 눈물이 우리 눈에서 지워질 날을 약속하셨다(계 21:4). 성경은 모든 고통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해주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그 의미와 소망을 전해준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통제와 봉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두려움과 죽음조차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세상에서, 지금이 바로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살아내

야 할 때다.

전 세계가 전염병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인 인종과 나이, 성별과 국적, 경제 수준 및 기타 정체성을 초월하는 연합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연합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혼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종교로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으로서 예수에게 끌리게 된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을 조롱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에게 행하는 최악의 행위는 주님의 역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교회의 목적과 사역이 무신론자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무신론자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는 기독교 박해국가지만, 이슬람에서 예수를 뜻하는 이사(Isa)는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가 없는 것으로 높게 존경받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에 30일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이래 27년 동안 이슬람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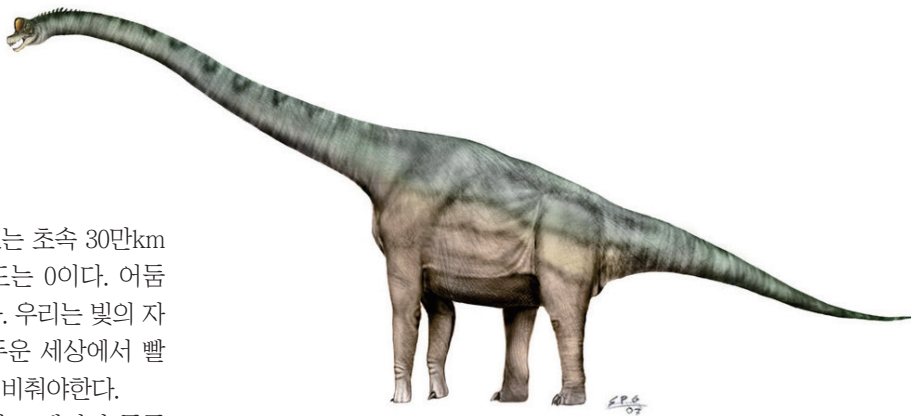
강제적인 혁신은 오늘날 사회의 질서이다. 이것은 매우 파괴적이지만 전화위복될 수 있다. 혼돈 속에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주님이다. 우리의 모든 전략, 프로그램, 자원 및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달성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주님이 의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역의 공동 참여자로 이 위대한 회복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이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생산성과 성능의 합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줘야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고전 3:6).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분의 주권 계획을 성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벧후 3:11~12)은 역설적인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일을 진척시키기도 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역사의 지연을 가져오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사역이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증해준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의 어느 부분에 동참하겠는가? <끝> [GPNEWS]



▲ 온라인 기도회 ‘유나이티드714(Unite714)’ 기도운동. 출처: 유나이티드714 홈페이지 캡처

기획 | 창조 이야기 (40)

성경에 나온 공룡 '베헤못'



▲ 육기의 '베헤못'으로 추정되는 긴 목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출처: quora.com 캡처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사람들은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공룡'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1841년까지 공룡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룡은 성경에 나와 있다. 욥기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 안에서 공룡을 발견할 수 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욥은 자녀들의 무덤 앞에 앉아서 종기의 고통을 짜내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물음에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

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 38:3~4a)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없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의도를 아신다(대상 28:9).'고 말한다. 그 분이 모든 생각을 알 뿐만 아니라 생각의 의도까지 아신다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 38:4b)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욥에게 85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다. 욥은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 그를 위해 85개의 질문을 하고 계신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욥 38:16) 1977년까지는 과학자들은 바다의 샘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과학자들은 성경의 일부를 천천히 따라잡는다. 성경은 말한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욥 38:19a) 빛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움직인다. 그 다음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욥 38:19b)고

말한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km이다. 어둠의 속도는 0이다. 어둠은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빨리 움직여서 빛을 비춰야한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욥 38:24)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신다. 햇빛이 바람의 패턴을 일으킨다. 빛으로 땅이 뜨거워지면 공기를 확장시켜서 바람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욥 38:35)라고 물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기가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라디오나 핸드폰, 전자레인지, 텔레비전처럼. 전기는 신호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낸다. 전선이나 전기 자기장이다. 라디오 주파수가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은 욥에게 4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지난 몇 백 년간 그것을 발견해 왔다.

그리고 40장에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욥 40:15a)라고 말씀하신다. 욥은 베헤못을 볼 수 있었다. 이 베헤못은 긴 목 공룡 중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여겨진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소같이 풀을 먹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중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고 설명한다. 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코끼리나 하마의 꼬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꼬리는 다른 것들 보다는 더 백향목 같다. 성경은 또 베헤못의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크고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실제 공룡의 발가락관절뼈를 보면 굉장히 크다. 공룡의 발가락뼈가

그렇게 큰 이유는 큰 발가락과 그에 맞는 커다란 발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발을 가졌던 이유는 지탱해야 할 큰 다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공룡의 앞다리는 약 6m나 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공룡은 머리까지 약 18m이다. 이 공룡이 살았을 때 무게는 100톤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 구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욥 40:19)고 말한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리쉬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동물이란 뜻이다. 그것은 코끼리나 하마는 아닐 것이다. 브라키오사우루스일 것이다. <계속>

[GPNEWS]



선교 통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전할 교회를 찾으며”

캐나다는 자유주의 국가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럽식 사회주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함께 부의 분배, 인권, 평등이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교회가 상업지구나 공업지구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를 제한한다. 특별히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대토론토 지역(Greater Toronto Area)은 인구 밀도와 임대료가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이민교회와 작은 교회들은 캐나다 교회를 시간 단위로 임대해 공유한다. 주일에 사용하지 않는 제철일안식일 교회나 유대교 회당, 혹은 다른 종교 시설이나 프리메이슨 홀을 사용하기도 한다.

총 20명 정도 모이는 우리 교회도 안식일교회 공간을 사용해왔다. 주일 11시에 예배할 수 있는데다가, 임대료도 주변 교회들의 60% 정도로 저렴해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임 후 첫 새벽기도에 주님은 이곳에서의 예배를 아파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교회를 찾아온 어떤 분은 건물 입구의 간판을 보고 돌아섰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찾아오신 어떤 가족도 건물 입구에서 차를 돌려 가셨다고 했다. 우리는 이단

이 아니고 미 남침례교단 소속의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들려도 건물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기도하며 울부짖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올해 3월,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교회 건물들이 문을 열지 않던 때였다. 교회소개와 예배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년 반 동안 줄기차게 이메일을 보내고 문을 두드렸어도 아무 반응 없던 교회에서 답변이 오기 시작했다. 모두 5개의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하나둘 뒤로 빠지고 가장 입지가 좋아 보이지 않던 교회만 남았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시골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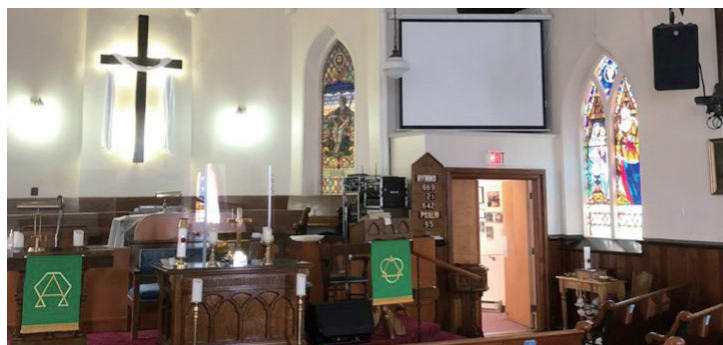
네에 홀로 서 있는 듯 보인 교회 뒤로 한국 기업이 있고, 상당히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예배 때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전 교인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해주셨다. 이 일로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이며, 주님이 결론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는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아직 미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하루 400여 명까지 치솟던 토론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30명까지 떨어졌다. 얼마 전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주일·주중 예배도 건물 수용인원의 30%, 최대 50

명까지 허용되었다. 최근 토론토에서 전화가 왔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예배시 찬양은 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 전 기도중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 너희 가족만이라도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한국에서 중대형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한 번도 해외 선교나, 특히 해외 한인 목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2017년 캐나다로 인도하셨다. 이곳은 다른 선교지처럼 어려움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주님이 보내신 땅 끝이다.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가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GPNEWS]

캐나다 토론토= 김범 목사, 유현아 사모



▲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옮기게 된 교회 예배당. 제공: 유현아 사모

복음의 능력

비우면 채워진다

어떤 그릇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다면 다른 것은 거기에 담을 수 없다. 이런 원리는 영적 법칙에도 적용된다. 내 삶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최대한 그들을 채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채우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원하는 만큼 성령충만해진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섰다. 지금도 성령은 영광스러운 임재로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비워라. 그러면 내가 임하여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유물론이 장악한 교육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는 장갑덕 목사(카이스트교회)



© 복음기도신문

카이스트에는 카이스트교회가 있다. 신학대학도, 기독교대학도 아닌 국가기관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30여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장갑덕 목사를 만났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길 꿈꾸며 섬겨 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떻게 카이스트에 교회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1970년대 초에 과학기술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서울 흥릉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오직 기계처럼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는데 대학원과정이라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동아리가 없었어요.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학생들이 목요일에 채플을 드리고 있었지요. 이들은 이 동아리를 교회라고 불렀고 창조과학회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 목사님은 이 카이스트교회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카이스트교회는 기독교 재단이 아니라 대학원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 교회입니다. 기독교학생회에서 동아리 이름을 카이스트교회라고 지은 것이죠. 이런 동아리 교회의 대표 형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군선교를 섬기다가 전역하고 한 지역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맡아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32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래 있을지 몰랐어요.”

32년째 카이스트교회를 섬기다

- 사연이 많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수학과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역사와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기독교학문연구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기술이 선교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을 선교적으로 부르신다고 믿고 이들을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어요. 사실 카이스트도 선교지나 마찬가지예요.”

- 어떻게 선교적인 헌신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를 선교지 같은 이곳으로 부

르시려고 주님이 제 학창시절을 인도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거듭남도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고1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사실 그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외진 곳에 있었어요.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날마다 노는 게 상여 놀이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죽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고생 안하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 더욱 우울했고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는 사람을 동경할 정도였어요. 근데 중3 때 친구에게 들었던 짧은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그때, 친구가 천지창조 얘기를 하면서 짧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는 웃긴다며 그 친구를 조롱하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고1이 되고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할 때 장난삼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 말씀이 목사님을 살리셨네요.

“자살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그 분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온 세상이 깜깜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온 세상이 밝아졌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거두어지면서 세상에 빛이 오니 나무와 꽃들, 모든 사물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당장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서 2km를 걸어가서 음성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에 나갔어요. 거기엔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일반 사람들은 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느낀 건, 내가 영적인 문둥병 걸린 자고 그들은 다 치유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었지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갈증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했죠. 역사시간에는 곰과 호랑이가 쫓과 마늘을 먹고 100일 기도를 드리다가 참을성이 강한 곰 여자와 환웅이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났다고, 그게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성경과는 너무 맞지 않잖아요. 성경과 다른 지식과 정보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요.”

- 창조와 진화의 충돌이 일어났군요.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1973년, 고2 때 엑스포로74대회 때, 소그룹리더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마음속에 늘 가시와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인본주의 유물론과 진화론 등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게 걸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신데, 제대로 알고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학대학에 가게 됐어요.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었고, 말씀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1차 정규 대입 시험에는 응시도 안했어요. 그리고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2차인 신학교에 응시를 해서 고신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강의시간마다 진리를 깨달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

-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인생의 해답은 어떻게 찾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또 모든 사물과 사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유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서구 사상의 인본주의 뿌리가 무엇이며, 유물론과 진화론이 정리되면서 인생의 가시와 같았던 것들이 치유가 됐어요. 가시와 영경귀 같은 독초와 진리를 떠난 교육으로 인해 힘들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 때문에 공부했는데 대학 때는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헌신해

가는 시간이었어요. 강의시간마다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나 건물 뒤에서 울기도 했죠.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되었고 시간마다 쏟아지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강의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강의시간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었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면서 공부하는 즐거움과 천국을 경험했어요.”

- 신학을 하고 인생의 해답도 찾으셨는데 일반적인 목회의 길을 걷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 모든 의심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며 질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같이 학교에서 유물론과 공산주의 등 엉뚱한 것을 배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거기에 가시와 영경귀가 있으면 고통하고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침 1980년대 민족 복음화 대회 때 여의도에 참석했는데, 그때 카이스트 교수였던 김영길 박사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창조과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를 계기로 창조과학자들이 모여서 창조론을 소개하는 모임에 준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이스트에 다니는 형제들도 알게 됐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창조론을 알다보니 까 지금까지 배웠던 진화론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진화론이 인류역사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진화론이 학교 교육을 장악하고 잘못된 유물론, 막시즘,

네오막시즘으로 다음세대를 교육한다는 것을 알고는 형제들과 잘못된 교육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이스트교회는 이미 있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를 설립하고 우리가 졸업하면 대학을 세우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 카이스트와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군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학생들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학생들끼리 모였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설교하는 형태였어요. 저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왔지만 조건은 어려웠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지 이들에게 검증해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굽기시지 않는지를 보여줘야 했어요. 학생들이 현금으로 20만 원을 주었는데 월세 8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출발해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기적 같은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 카이스트 형제들 안에서, 아픈 몸도, 우리의 필요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페이스 미션(faith mission. 믿음 선교)이란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우셨는지, 일일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기적같이 삶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학생들, 다니엘 기도운동을 전개하다

-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전도·양육·파송이란 목표를 세우고 이들을 선교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지 기

(6면에 계속)



▲ 대전 국립묘지에서 드린 카이스트교회의 1993년 야외예배 모습. 제공: 장갑덕 목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참된 예배자 (4)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예배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말 3:7)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사는 것이다. 아담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벤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로 얼른 알아 들었다. 그런데 ‘주여 주여’하는 자들이 빈정거리며 모르겠다고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름만 남은 죽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하신 규례대로 사는 것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말 3:8) 하나님은



일러스트=이예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십일조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소득의 10분의 1뿐 아니라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청지기로 맡아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은 도둑질이다. 최후의 통첩을 받아야 하는 암울한 시대, 바르게 산다는 게 어렵고 진리가 조롱을 받는 어두운 때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예배에 대한 도전이다. 주님은 심각한 병에 걸려 예배가 무너진 우리의 영

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며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경외하고 높이며 섬기는 것이라고 알려주신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섬기는 것

첫 사람 아담의 저주는 예배에 대한 공격에서 왔다.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하게 지어진 인간에게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 예배가 필요 없는 자야.’라고 공격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아담은 저주를 받았다. 이 때문에 모든 인류는 만물과 함께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게 됐다. 이 저주가 이어져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숭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끝까지 원망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나타난 곳이었지만 불평하며 악을 쓰던 자들에게는 말라기 시대와 같이 예배에 실패하고 인생마저 실패한 장소로 끝나고 말았다. 배후에서 공격하는 영적 존재 사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전략으로 예배를 허물려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6)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아담의 저주를 받아 소망 없던 심령 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마지막 사명자요 선지자인 엘리야, 세례요한을 보내겠다고 하신다. 죄의 반역성에 빠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사 주님이 창세 전에 꿈꾸셨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완전한 원형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으로 구약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2018년 2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다니엘 기도운동 이후 부흥을 맞이하다

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주셨어요. 카이스트에서 연구에 사로잡힌 학생들을 보면 마치 다니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그들처럼, 카이스트 학생들도 국가지원으로 공부를 하고 국가를 위해 일정기간 봉사를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이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이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에 3번 모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말씀을 읽고, 점심에는 오전에 봤던 말씀을 나누면서 경배와 찬양, 저녁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기도운동(Daniel Lifestyle Movement)을 시작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요일 저녁 채플 집회가 열

리고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됐지요. 88년 1월 첫 주에 헌신해 교회에 왔는데, 1년 뒤인 89년 1월 첫 주엔 주일모임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큰 변화죠. 당시 학생들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어, 카이스트교회만의 행사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사역자인 저도 주일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대학부를 지도했어요. 이런 현실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 편치 않았습니 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일예배 모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주일예배를 시작했지요.”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카이스트교회 예배 현장. 제공: 장갑덕 목사

“아버지의 틀니를 빼드리고 무좀난 발을 소독할 수 있게 된 나”

2018년에 복음을 만났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보니 그저 난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며 놀랐고 그 삶이 사모되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의 삶을 전부로 드리며 살고 싶었다. 남편도 복음을 만나고 신앙훈련을 받은 후, 우리의 남은 삶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장과 집을 정리하여 무소유의 삶을 시작했다. 우리의 공급자와 인도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믿음의 첫 걸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섬기는 자리였다. 늙고 병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서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요양원 생활도 어려워져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집으



일러스트-고은연

로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니를 돌봐드렸다. 그리고 저녁에는 남편과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친정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있었지만 신앙훈련을 마치면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5) 복음을 만나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됐다. 내 상처로 인해 아버지를 증오하며 미워했다. 마음으로 항상 살인했던 죄 된 나의

나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식 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섬기는 이 자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이 믿어졌다. 주님이 하셨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 간다. 교회를 다니며 전도도 많이 했지만, 전도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 복음의 증인된 삶이야말로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참 전도였다. “아버지, 교회 좀 가세요.”라고 말만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막내딸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네.”라고 말씀하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길 기도한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나를 생명의 통로로 서게 하시길 기도한다. [GPNEWS] 최남숙

그림 묵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다보면 때론 내 마음과 달리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주님을 찾아가거나 다른 해결책들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넘어졌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 [GPNEWS] 글.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북한, 中 파견 노동자 식비까지 ‘총성자금’으로 갈취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재중 북한 관리자가 노동자 식비 중 일부를 당 총성자금으로 헌납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사장들이 노동자들의 식비를 갈취해 총성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월급에서 식비로 책

정된 300위안(한화 약 5만원) 중 100위안(한화 약 1만 7000원)을 노동자들로부터 뺏어 헌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전부터 월급에서 일부를 ‘당 자금’ 명목으로 징수했지만, 최근엔 식비로 책정된 부분에서도 추가로 돈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수주량이 급감해 할당된 총성자금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노동자들의 식비에서 이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소한의 식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재중 북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실정이다. 소식통은 “300위안이면 조선 노동자 한 사람이 쌀밥에 간단한 채소와 김치, 그리고 약간의 고기를 사와 요리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라면서 “밥을 먹을 돈도 보장해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중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한 무역 일꾼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총성자금과 각종 숙제

(당국이 요청한 물품)를 위한 돈이 모이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월급에서 가던 돈을 높이거나 생활비를 줄이고 남은 돈을 걷고 있다. 식사 질이 좀 떨어지지만, 조국에선 비루스(바이러스)

에 흡수 피해 등으로 백성들이 굶는 마당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 사정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GPNEWS]



▲ 강계은하피복공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 데일리NK 캡처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 당해 성매매로 팔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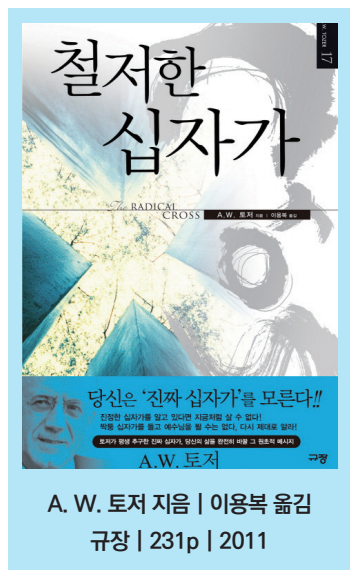
탈북 여성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브로커들이 북한 내부의 인신매매뿐 아니라 중국 내 거주하는 많은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와인권위향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 여성들의 실상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서 제3의 브로커를 친척을 통해서 소개받았다.”면서 “입쌀(백미) 100kg을 살 수 있는 돈을 중국의 친척을 만나 주고 두만강을 넘어가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데 그분이 북한에 저렇게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많겠다. 저런 사람들을 팔면 돈벌이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팔려가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다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면서 탈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넘겨주는 사람, 받아서 파는 사람, 옮겨 주는 사람 등 브로커들도 여러 역할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살기가 힘들어 자원하는 탈북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압적으로 데려가는 사례가 많다면서

“기차역에서 잠들었는데 깨워서 돈 벌 생각이 없느냐고 저런 사람들은 드링크를 주길래 마셨는데 실신을 했다가 눈을 떠보니 중국이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몸을 파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인신매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살

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18살 된 아가씨는 군대에 나갔던 오빠가 영양실조로 집에 오자, 자기가 인신매매로 가정을 살리겠다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돈을 번다 해도 몸값은 브로커들이 나누어 가진다. 이에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팔려가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단체 몇 개만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GPNEWS]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목숨을 구하려면 잃어버리라



이 책의 원제는 '더 래디컬 크로스(The radical cross)'다. 래디컬은 '근본적인, 철저한, 급진적인, 과격함'으로 번역된다. 이 단어는 십자가를 설명하기에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토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사형 도구였다. 그리고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도구이기도 하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세상과 옛 자아의 나에게 영영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토저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는데 매우 능하신 분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무거운 쇠나 납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가볍게 보이는 지푸라기로도 만들어 주신다. 남들이 보기에 가벼운

지푸라기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서 완전한 죽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때 내게 있었던 지푸라기와 같은 십자가가 기억났다. 또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도 떠올랐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지난 시절, 나는 순교를 결심하기까지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지푸라기와 같은 십자가의 자리가 허락될 때,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지 못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열정으로 바꿨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기도, 예배, 헌신의 자리에는 아낌없이 나를 드렸다. 토저는 "육신적인 화와 짜증을 내버려둔 신령한 자는 없다."고 선언한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화를 드러내는 내가 못 박혔음을 보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 지푸라기 같아 보여도 육신에 속한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와 예배, 헌신의 기쁨과 승리가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토저는 십자가가 한 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십자가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아간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 가장 지혜로우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역설적인 영광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역설적인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원했고, 주님을 위해 나를 가꾸 세상에 빛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능력 뒤에 숨어 나의 연약함을 숨기면서 나의 강한 부분만 사람들에게

게 보이려고 애썼다. 결국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시간이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세상과 비슷하여져서 세상의 영혼들을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

토저는 십자가를 미화하고 십자가의 엄격함을 완화하여 교인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교회를 향해 한탄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에, 육신에 속한 모든 삶이 끝났음을 강력하게 선포했다. 2020년을 살아가는 내게도 저자의 메시지는 울림이 된다. 날마다 십자가의 철저함을 농도만큼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내게 더욱 믿음으로 십자가로만 나아가길!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마라나타! [GNNEWS] 김은영 선교사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8)

차별금지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젠더를 가르치고 있다.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사회 문화적 성을 젠더라고 한다.' 이 문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젠더교육은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 성의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젠더교육은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 도덕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고 인간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타락시킨다.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동성애 젠더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젠더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랫치 초등학교(Bewsey Lodge Primary School)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서 동성애자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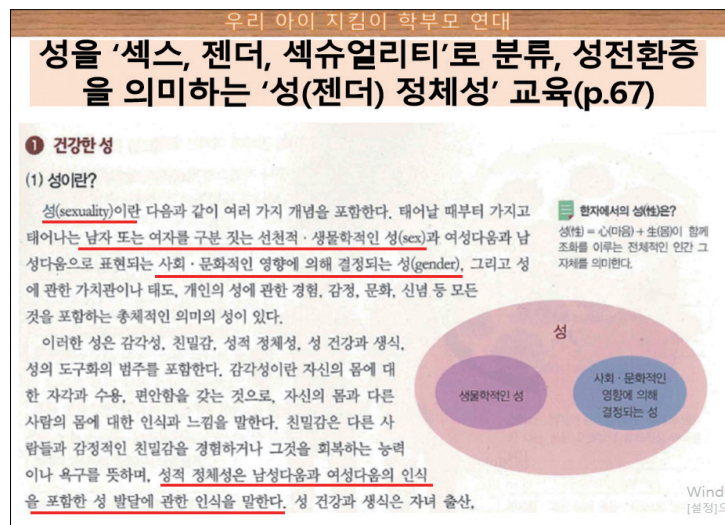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이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교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교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리 교과서에서는 14세에 동성애가 나오기(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성 정체성을 설명하며(누리베르스쿨 중학교 도덕1 등), 자위행위를 소개하고(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1), 콘돔 사용법 등 다양한 피임법을 설명하고 있다(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1 등). 또한 17세에 상호 동의만 하면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젠더교육은 앞으로 관련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 세대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려는 이 세대가 갖는 악함의 속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 [GNNEWS]



▲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결정되는 성(gender)이 있다고 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주고 있다. 출처: 중학교 보건 교과서(2015년), YBM 출판사(p. 67) 캡처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

공지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초등학교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8. 14 ~ 8. 27 (가나다 순)
개인
김나리 김다경 김선희 김애심 김태숙 김혜신 박경희 박성규 박숙자 박현숙 윤경석 우 석 이은주 장근혜 정영배 조명숙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김화제일교회 마중물교회 시은좌교회 새순교회 반석중앙교회 선한목자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오보평강교회 주소망교회 처음사랑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